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12일 월요일 음 11월 24일 (1월)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주	20%
60%	성산	20%
60%	고산	20%
20%	서귀포	2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7/13°C
모레 구름많음 1/13°C

구름많음

제주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C, 낮 최고기온은 11~12°C로 예상된다. 새벽까지 곳에 따라 눈이 내릴 수 있으니 빙판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풍랑이 강하겠다.



김성훈

편집부국장

해뜰 07:39	달뜰 01:52
해침 17:46	달침 12:33
물때	간조 12:04
만조 06:42	16:52

자외선지수	산불위험지수
낮음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일본, 남태평양 심해 희토류 시굴 착수

中 갈등 속 공급망 구축 속도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이 남태평양 심해에서 희토류를 시굴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해양 연구 개발 기구 (JAMSTEC) 탐사선 '지류'는 12일 오전 홋슈 중부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시미즈항에서 출항해 도쿄에서 약 1950km 떨어져 있는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로 향한다.

탐사선은 미나미토리시마에서 동남쪽으로 약 150km 거리에 있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채굴 기계 성능과 작업 순서를 확인한다.

탐사팀은 수심이 약 6000m인 바다에 채굴 기계를 넣어 희토류 시



굴을 시도한다. 이르면 이달 말에 희토류가 포함된 진흙을 탐사선으로 회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탐사팀은 이후 진흙에서 희토류를 분리·경제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시굴 작업은 2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은 희토류 채취에 성공할 경우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채굴 실험을 추진해 희토류가 포함된 흙을 하루 최대 350t가량 끌어올려 채산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한국일보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한 육 편집국장 고 대 로

④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 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5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기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감귤 신품종 분양
2026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리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탈나봉

온주

궁천, 하례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근처로)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전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귤 ● 하귤(아마나스) 외
다수 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원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탈나봉
- 미니몬 ● 제라몬



※ 포트묘목 生존률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하귤
- 오하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축적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 2327-1) 하예동 1831-2번지
농장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2026 제주관광, 거창함보단 실현 가능 정책이 필요하다

로 제주행이 급감하면서 분위기가 처지며 바닥을 헤맸는데 마무리가 좋았다. 제주, 말의 고장이라 그런가. 말의 해 시작이 산뜻해 올해 신기록이 기대되고 있다.

제주도 당국은 올해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해를 '더-제주 포 시즌 방문의 해'로 정하고 비수기 없는 사계절 관광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전략의 핵심은 제주 체류를 늘리며 씀씀이를 키운다는 것으로, 양적성장보단 질적성장 중심으로 제주관광을 바꾼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며 1400억 원 대 종잣돈을 준비했다. 예년과 다른 결연함이 보여 고무적이다.

관광분야는 감정적이다. 변수에 민감하다는 의미다. 작년 제주 내국인시장은 비계 삼겹살로 촉발된

여러 바가지 논란이 불거지며 맘고 생했다. MZ세대들을 중심으로 '비싼 제주에 갈 거면 일본 간다'는 말이 공공연히 퍼졌고 실제 젊은층의 제주 외면은 현실로 이어졌다.

외래시장은 변수가 더 크다. 작년 말 중국과 일본 간 갈등으로 일본은 직격탄을 맞았고 우리나라를 때 아닌 '중국 인바운드 호황'을 만끽했다. 우리도 수년 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제주를 포함해 국내 외래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적 있지 않은가. 그래서 특정국가에 치우치지 않는 시장 다변화는 매년 외래시장 핵심정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9년 만에 외국인 200만명을 기록한 제주 입장에서 시장다변화는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이다.

사실 앞서 관광시장을 준비하는 제주도정을 치켜세우긴 했지만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정책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하는 이른바 '말의 성찬'이 보이기 때문이다. 제주관광, 비수기가 없어진 지 오래다. 매달 100만명 이상이 온다. 양적 성장보단 질적성장 추구는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다. 올해 추진할 세부 마케팅에서 체류형 콘텐츠 확대, 고부가 마이스 융복합, 글로벌 외연 확장 등등 매번 들어온 것들이 즐비하다. 올해 말 결과물을 눈할 때 기대만큼 녹록지 않을 수 있음이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해외여행을 한 우리나라 국민이 약 2433만명이다. 그해 한해 제주를 찾은 내국인의 두 배가 넘는다. 해외여행이 올해도 견고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 분석이다. 내국인관광시장이 정체국면인 제주입장에선 이에 초점을 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거창한 정책보단 실현 가능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열린마당

제주, 청년이 남고 싶은 삶이 되려면

고석용
제주한라대학교 RISE사업단장

아울러 제주에서도 글로벌 무대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대학은 AWS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 기업·대학들과 협력하고 있다. 학생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캡스톤디자인, 리빙랩, 해커톤 등 다양한 실천의 장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과 산업 현장에 적용되고, 일부는 창업으로까지 이어진다.

한라대 RISE사업단은 '제주의 꿈'을 품고 들어온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 중국과 아시아 주요 국가에 글로벌 거점 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1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첫 해외 센터를 설립했다. 이미 제주에 있는 유학생들이 학업에서 취업, 나아가 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다.

제주한라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제주가 그 인재들을 끌어들고 인공지능 융합전공을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재편했다.

이형희
서귀포시 산지경영팀장

소비의 중심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했다.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는 일상의 일부가 됐다.

파손을 우려해 여러 겹으로 과대 포장된 택배도 여전히 많지만, 최근 'green life together'라는 문구가 적힌 친환경 배송 박스를 종종 만나게 된다. 컬러 잉크를 사용하지 않고, 제품 크기에 꼭 맞게 제작된 박스다. 박스를 열어보면 스티로폼 대신 재활용 종이 완종재가 들어있다.

제품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지만, 포장이 화려할수록 쓰레기도 늘어난다는 사실인지는 소비자의 뜻이다.

변화의 출발점은 소비자다. 환경을 고려한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가 늘어날수록 기업 역시 포장과 유통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다. 택배 상자 하나를 그냥 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읽어낼 것인지는 소비자의 뜻이다.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는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추진한다고 한다.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제조·유통·사용·폐기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것이다.

변화의 출발점은 소비자다. 환경을 고려한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가 늘어날수록 기업 역시 포장과 유통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다. 택배 상자 하나를 그냥 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읽어낼 것인지는 소비자의 뜻이다.

강정종묘 종남농장



제18-서귀포-2019-20-03

- 국립종자원에 생산, 판매신고가 된 믿을 수 있는 공식업체
- 국내육성 품종통상실시 계약원료
- 다양한 연수 포트묘 보유중

등록품종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카라향, 레드향,
하귤, 유라조생, 레몬.

신품종

달코미, 우리향, 미래향,
설향, 맛나봉, 레드스타,
하례조생, 원터프린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530 (사무실)
주문전화 010.3696.1614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의원
DONGGU DENTAL CLINIC